

예·적금 혜택만큼 커진 대출이자... 피해는 차주 몫으로

10월 코픽스 3.98%... 사상 최고 銀, 변동형 주담대 금리 8% 돌파 “차주 피해 적은방안 찾고 있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섰고 예금금리 역시 5%를 돌파했다. 예금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대출금리 상승도 불가피해졌다. 차주들의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98%로 집계됐다. 지난달(3.40%)과 비교해 0.58%포인트(p) 오르면서 2010년 2월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KB국민은행 연 5.76~7.16%, 우리은행 연 6.32~7.12%, NH농협은행 5.67~6.77%, 신한은행 연 5.26~6.51%, 하나은행 연 6.47~7.77%로 집계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는 지난 14일 은행채 1년물 기준 6.76~8.064%로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섰다. 은행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5.21~7.32%, 신용대출(6개월)은 6.11~7.46%로 연 8%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도 있지만 시중 은행들의 과도한 예·적금 인상 경쟁 때

문이다. 금리인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투자를 하기보다 안전자산인 은행으로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10월 말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 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56조 2000억원 늘어나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기록했다.

은행별 금리를 살펴보면 ‘KB국민은

행 KB Star’ 정기예금이 5.01%,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4.98%, NH농협은행 ‘NH왓츠회전예금 II’ 4.9%, 신한은행 ‘출편한 정기예금’ 4.85%, 전북은행 만기일시지급식 ‘JB 123 정기예금’ 5.1% 등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정기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이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이자를 더 주

고 돈을 끌어 모아 대출이자를 더 비싸게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피해는 차주들이 받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출 자산으로 쓰이는 예·적금 유체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결국 예·적금 이자를 더 받기 위해 대출이자가 배로 나가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시중자금의 은행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에 과도한 수신 경쟁을 자제하고 예금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은행들이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제에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차주들의 피해가 적은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대부업체도 돈 안 빌려줘”...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피해 ↑

대출 부실우려 커지며 심사 간간해져 당국, 우수대부업체 유지조건 개선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저신용자들이 늘고 있다.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저신용자가 1·2금융권(은행·저축은행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지만 조달비용 상승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부실우려가 커지면서 심사가 간간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의 유지조건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율을 유지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을 대상으로 범정부적 수사·단속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리인상에 불법사금융 내몰린 저신용자 ↑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

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 8538건) 대비 12% 증가했다. 그 중 불법사금융은 9238건으로 전체 신고·상담 건수의 25.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등록대부업체 신고 건이 4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2255건), 대부광고(1732건), 채권추심(869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늘어난 이유는 금리인상으로 대부업체의 심사가 간간해지면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대부업체의 경우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영업한다. 금리인상으로 조달금리가 12%안팎까지 오르면서 대출심사는 더 간간해졌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중계플랫폼 2~3%포인트(p), 대손비용 8~10%p까지

합치면 법정금리를 초과할 때가 많다”며 “금리가 오르면서 최대한 부실이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12만명으로 지난해 2018년(221만명)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대부업체도 줄었다. 지난해 대부업체 수는 940개로 지난해 2017년(1249개)과 비교해 24.7% 감소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상승기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법정금리인 20%에서 한계를 느낀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지하고 있다”며 “저신용자의 경우 대부업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수대부업체 중심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의 유지조건을 개선해 서민층 신용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대부업체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저신용자 대출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우수대부업체는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 받기 때문에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받을 때보다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

기존에는 우수대부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선정시점을 기준으로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잔액을 일정비율 유지해야 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경우 90%이상 유지 ▲잔액 대비 저신용자 대출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60%이상 유지 ▲선정당시 비율이 70% 미만이라면 60% 이상을 유지하거나, 선정 당시 비율이상 유지 ▲

저신용자 개인대출의 만기연장 승인이 90%이상 유지 등이다.

앞으로는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저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미만이라면 선정시 잔액의 90%를 유지해야 하고, 저신용잔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면 심사시 잔액의 80%이상 또는 선정시 잔액의 90%를 유지하면 된다. 유지심사시 저신용대출잔액이 100억원이 넘더라도, 선정 당시 잔액의 90%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늘린다

코로나19 기간 소액연체를 전액상환한 경우 금융회사에 신용평가를 미반영하기로 한 조치를 반영해 대출잔액이 감소하거나 대출선정 취소가 없도록 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수사·단속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MS, 메타버스 기술 협력 MOU

AR·MR 금융 콘텐츠 개발 등 협력

KB국민은행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버스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증강현실(AR) 분야 공동 과제 발굴 및 실행 ▲증강현실(AR)과 혼합현실(MR)을 활용한 금융 콘텐츠 개발 ▲금융과 메타버스(AR, MR)의 융합 서비스를 위한 기술 협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홀로렌즈를 활용한 금융콘텐츠를 개발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영업점 직원이 가상의 고객을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전산IT센터에서 열린 ‘메타버스(AR·MR)’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 /KB국민은행

대상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핀테크 데모데이’ 성료

서울시 공동개최... 우수기업 투자 검토

IBK기업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서울시와 공동 개최한 ‘데모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2022 서울디지털금융페스티벌’ 1일차 개막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됐다.

이번 데모데이는 IBK의 오픈이노베이션 테스트베드 ‘IBK 1st Lab’과 국내 최대 핀테크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소속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본선에 오른 총 6개의 참여기업이 벤처캐피탈(VC) 소속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심사위원 앞에서 IR피칭을 선보였다.

본선에 오른 기업은 ▲씨엔테크(동산담보물 24시간 관리 솔루션) ▲씨즈데이터(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가공 솔루션) ▲엔톡(공공데이터 분석 기반 중소기업 대안신용평가) ▲리체(선구매 후결제 전용 커머스) ▲브릿지코드(세무회계 매칭서비스 플랫폼) ▲펀더풀(K-콘텐츠 증권투자 플랫폼) 등 총 6개사다.

데모데이 참여기업에게는 전문 컨설턴트의 비즈니스 모델(BM) 분석 및 스피치 트레이닝을 제공했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소속 벤처캐피탈(VC)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

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 봐야 했던, 각종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1월부터 예금잔액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와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